

다산포럼

세계는 하나의 꽃



김정남 언론인

1945년 8월, 충남 예산 수덕사의 작은 암자에 머물던 만공(滿空)은 일본이 항복하고 조국이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다음날인 16일에야 들었다. 신자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암자에서 내려오면서 길가에 핀 무궁화 꽃, 몇 송이를 꺾다. 내려와서는 무궁화 꽃에 먹을 짝이 '세계일화(世界一花)'라는 네 글자를 쓰고 낙관 대신 근화필(根花筆)이라고 썼다.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만공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요, 이 나라 저 나라가 둘이 아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한 송이 꽃이다. 머지않아 이 조선이 세계일화의 중심이 될 것이다. 지렁이 한 마리도 부처로 보고, 저 미웠던 왜놈들까지도 부처로 보아야 이 세상 모두가 편안할 것이다.”

몇 년 전 바로 그 '근화필 세계일화'를 복사해 만든 액자를 서초 벼룩시장에서

샀다. 붓 대신 꽃으로 써서 그런지 다소 거칠기는 하지만 선기(禪氣)가 느껴지는 글씨였다. 나는 그 액자를 그때 막 창립, 개소한 정수일의 문명교류연구소에 보냈다. 문명교류연구소의 지향과 딱 들어맞는 글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 뒤 언젠가 아산 인취사에 연꽃을 보러 갔다가 사경(寫經)을 하는 주스님의 방에서 만공이 붓으로 쓴 '세계일화'를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근화필과는 달리 잘 정제된 글씨였다. 1990년대 초 독일에 갔을 때 1970년대에 광부로서 정착한 이종성의 집에서 '세계일화'라고 쓴 액자를 또 보았다. 그것은 장공(長空) 김재준 목사가 쓴 것으로 무척이나 단정했다.

불교와 기독교에서 각기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두 분이 '세계일화'라는 글씨를 즐겨 썼다는 사실이 놀랍다. 두 분이 공히 '세계일화'를 꿈꾸고 있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생각한 '세계일화'는 어떻게 생긴 꽃일까. 또 그분들이 바라는 세계는 어떤 것이었을까. 단 한가지 색깔이나 품종으로 된 거대한 한 송이 꽃, 세계정부 아래 하나로 흡수통일된 세계일까. 아니면 다양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한데 어우러져 그 자체로 하나의 꽃이 되는 그런 세계일까.

언제부터인가 봄이 오면 꽃을 찾아 나

서는 관광객행이 풍미하고 있다. 한려수도의 동백, 섬진강변의 매화, 구례산동의 산수유, 화계장터의 심리 벗꽃길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그 여행을 끝내고 돌아와 온갖 꽃들이 신록과 함께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북한산을 볼 때에 우리의 눈은 얼마나 호강하는가. 일찍 폼다 가 진 남도의 벗꽃보다 만산의 신록 속에 몽클몽클 피어있는 산벚꽃은 얼마나 싱그러운가. 저 혼자 일찍 핀다고 불이 아니라, 다 함께 피어야 비로소 봄인 것을 저절로 알겠다.

공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고 했다. 어울리되 내가 남과 다른 것을 굳이 내세웠지만, 나와 내가 다르지만, 기꺼이 어울리기를 선택한 부동이화(不同而和)를 실감하게 되는 것도 이 무렵의 산천에서다. 나는 이때 문득 서로 어울려 하나의 꽃으로 장관(壯觀)을 이루는 바로 거기서 '세계일화'의 참모습을 본다.

'세계일화'를 생각하면서 시대의 화두요, 대세로 되고 있는 세계화라는 것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가 세계인의 관심과 애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세계는 하나다. 그러나 세계화는 온 세계가 하나의 색깔로 일사불란하게 하나 되어 가는 것, 가장 앞서가는 나라, 가장 힘이 센 나라를 표준으로 하여 거기에 맞추어 하나 되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한 세계화란 다양한 민족과 지역의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가 마음껏 펼쳐져 전체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화합의 세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세계가 바로 '세계일화'일 것이다.

일찍이 백범 김구 선생은 세계화와 민족주의에 대해서 사려 깊은 통찰을 한 바 있다. “세계인류가 내요 내요 없이 한집이 되어 사는 것이 좋은 일이요, 인류의 최고요 최후의 희망이요 이상이다. 그러나 그것은 멀고 먼 장래에 바랄 것이요, 현실의 일이 아니다. 현실의 진리는 민족마다 최선의 국가를 이루어 최선의 문화를 낳아 길어서 다른 민족과 서로 나누고 돕는 일이다. 이것이 내가 믿고 있는 민족주의요 인류의 현 단계에서는 확실한 진리이다.”(나의 소원)에서

이런 일화가 있다. 베트남의 국부 호치민(胡志明)이 냉전시대 어느 날 스탈린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때 스탈린은 작심하고 물었다. “당신은 민족주의자로 남고 싶소, 아니면 국제주의자로 남고 싶소?” 이에 호치민은 주저 없이 대답했다. “민족주의자와 국제주의자로 남고 싶소.”

세계화와 민족주의의 가장 아름다운 조화, 그것이 바로 '세계일화'다. 이 불남 우리나라가 세계일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과 중심이 되기를 기원해 마지않는다.

양동옥의 S스토리

공감적 이해가 필요할 때



성교육전문가·심리학박사

을 지으며 곧이어 울음을 터뜨리기에 엄마를 안기도 한다. 하지만 공감적 이해가 낮은 아이들은 아픈 엄마를 쳐다보면서 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눈치채지 못한 다. 잠깐 엄마의 손을 보다가 이내 장난감 놀이를 계속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 상황이 어색한지 피식 웃어버리는 아이도 있다. 이러한 공감적 이해 능력의 차이는 비단 아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모습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공감(共感, empathy)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를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그의 입장이 되어 느끼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공감 이입하여 함께 경험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공감을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 보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자신의 신발을 아닌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그의 길을 걷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의 내적 경험을 동일하게 체험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딱하고 가엾게 여기는 동정(同情, sympathy)보다 훨씬 깊은 정서적 공유이다. 그래서 공감적 이해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어 마음을 열게 할 뿐 아니라 슬픔이나 고통과 같은 정서를 치유할 힘을 주기도 한다.

하버드대학교 과짜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어떻게 인지하는

지 궁금했다. 이들은 몇 명의 학생을 두 팀으로 나눠 한 팀은 흰 상의를, 다른 팀은 검은 상의를 입게 했다. 그런 다음 각 팀에 농구공을 하나씩 나누어 주며 무대를 이리저리 움직여 같은 팀끼리 패스하도록 했고, 그 장면을 찍어 1분이 채 되지 않는 동영상 만들었다. 연구자는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여 그 동영상을 보여주며 이렇게 주문했다. '검은 상의를 입은 팀의 패스는 무시하고 흰 상의를 입은 팀의 패스 횟수를 마음속으로 세어주세요.' 동영상에 끝나자마자 연구자는 실험참가자에게 패스 횟수가 몇 번인지 물었다. 대다수의 참가자가 패스 횟수를 정확히 맞췄다. 그러나 연구자는 패스 횟수를 정확히 세는가에 관심이 없었다. 그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다. 그들의 질문은 계속됐다. '패스 횟수를 셀 때 뭔가 이상한 걸 느끼셨나요?', '선수를 말고 눈에 띄는 누군가는 없었나요?',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농구공을 패스하는 장면에서 고릴라를 보았느냐고 묻더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사실은 동영상 중간에 고릴라 의상을 입은 사람이 왼쪽 끝에서부터 무대 중앙으로 걸어들어 오는데 맞춰 서서 카메라를 향해 가슴을 치고 나서 오른쪽 끝으로 걸어나갔다. 고릴라가 등장하는

시간은 약 9초 정도였다. 놀랍게도 실험 참가자의 약 절반이 고릴라를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이 실험은 여러 나라에서 반복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필자 역시 대학생에게 이 실험을 했을 때 절반 가까이가 고릴라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동영상을 되돌려 고릴라가 등장하는 장면을 보여주자 '말도 안 돼!'라고 반응했다.

절반 정도의 참가자들이 고릴라를 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무주의 맹시'라는 현상인데, 눈이 특정 위치를 향하고 있지만 주의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눈이 향하는 위치에 예상치 못한 대상이 나타나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실험참가자들 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패스 횟수를 세는 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고릴라의 등장에는 '눈이 먼'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아주 선행하게 보고 있다고 자신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당장 관심을 쏟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상은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우리 삶 한가운데 있는 재난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들이 겪는 고통과 비탄에는 '마음이 먼'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자. 무엇보다도 그들의 입장에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공감적 이해가 필요하다.

기 고

세월호 참사 반성문



김창석 수필가·전 장흥군 용산면장

사실을 섬광처럼 깨닫게 된다. 다시 말하면 역경이 영혼을 일깨우며, 가슴 아픈 상심이 우리의 가슴을 열어젖힌다.

시련과 고통이 닥치면 우리는 새로운 현실에 눈뜨게 된다. 보이지 않던 것, 높은 벽에 가려 시야에 들어오지 않던 무언가가 서서히 우리 삶에 파고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매일 어떤 사건을 목도 할 때마다 모두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렵곳이 깨닫게 된다.

동병상련, 시련에 처하면 우리는 전보다 조금 더 겸손해지고, 조금 더 마음을 열며 무언가를 주거나 받는 것에 더 관대해진다. 하여 위로와 타인의 말과 타인이 건네주는 음식과 담요를 받아들인다. 그

러나 우리가 지금 통곡하고 있는 세월호 침몰 참사의 반성문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국민들은 정부의 뒷일 처리하는 솜씨를 유심히 지켜보고 성의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엄하게 질책할 것이다. 서해 웨리호,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대구지하철 사태를 어물쩍 답습해서 안 된다.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순간적으로 잃은 목숨과, 오랜 시간동안 차가운 어둠과 공포속에서 죽음을 인지하며 짝짝 짝짝 사투하다 숨진 어린 생명들과는 우리들 가슴에 처절하게 와 닿는 슬픔의 강도를 비교할 바 못 된다.

사고 수습에 정부의 컨트롤타워 시시비비나 '안전' 글자 떼어 붙이기 논쟁도 비겁하고 유치하다. 어쩌면 '안전' 글자가

서야할 자리는 국토해양부나 건설교통부 머리에 붙여야 그 격이 더 어울리고 이해하기도 쉽다 하겠다. 미루고 속이고 책임 떠넘기기에 안전행민 안전행정부였다면 차라리 공적행정부로 개칭하면 어떨런지?

앞으로는 똑같은 나물을 웃어뜯만 바뀐다면 새 그릇에 담으려는 공력 허비도 줄여야 한다. 개혁이랍시고 짜맞춘 부처의 간판 바꾸기가 허튼 총성과 유행병으로 그 취지가 변질되고 끝내 낭비와 혼란의 불씨가 되었음을 무수히 보아왔다.

겨울이 오면 봄은 멀지 않다고 셸리는 말했다. 우리를 가슴속에 동동 떠다니는 노란 리본들, 단 한사람이라도, 단 한사람이라도 파도를 뚫고 살아서 우리들 품에 돌아와 주었으면.

社說

재심 요구 빗발치는 새정치 광주·전남 공천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광주에서는 공론조사 선거인단 명단의 사전 유출 의혹이 제기됐고, 전남에서는 민주계의 밀어붙이기에 안철수계가 반발하고 있다. 재심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지난 10일 시·구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공론조사 투표가 진행된 광주 북구 읍면에서는 선거인단 명부 사전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한 참관인은 “지역위원장 미는 후보들이 만나 서로 수합한 선거인단 명단을 교환하며 공론 투표에 대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북구를 지역위 관계자는 “명단 유출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경선에 참여한 7명의 후보들은 사전 유출 명부를 증거로 재심을 요청해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들을 포함해 12일 현재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한 사례는 광주에서만 6건(13명)에 이른다.

전남도당도 11일 집행위원회를 열어

기초단체장·지방의원 경선후보를 발표했지만 안철수계 집행위원들은 ‘원천 무효’라며 당 최고위원회의에 제소할 태세다. 무공천 하기로 했던 화순군수 후보와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키로 했던 여수시장 후보를 단수추천해 사실상 전라공천한 데다 나주와 보성=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결정을 보류한 탓이다.

같은 이면에는 옛 민주당과 안철수 공동대표 측의 통합 과정에서 잉태된 계파 간 지분 다툼이 자리하고 있다.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위원회가 ‘민주계’와 ‘안철수계’로 갈라져 경선 방식과 후보자 적격 여부를 놓고 힘겨루기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통합 당시부터 어느 정도 예견되기는 했지만 정도가 너무 심하다. 지역 유권자들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듯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것이 과연 새정치요, 통합의 정신을 살리는 모습인지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노후 어업지도선 규모화·침단화 시급하다

전남도내 어업지도선의 대부분이 오래되고 낡아 지도선으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으며, 사고의 위험도 크다는 지적이다. 상당수의 지도선이 건조된 지 15년~20년 이상 됐지만 이를 대체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 직속 어업지도선 4척 가운데 60t급 '전남 210호'는 선령(船齡)이 22년이나 되고, 33급 '전남 204호'는 19년에 달한다고 한다. 시·군 지도선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여수, 목포 등 13개 시·군에서 14척을 보유하고 있을 때 절반 가까이가 고릴라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동영상을 되돌려 고릴라가 등장하는 장면을 보여주자 '말도 안 돼!'라고 반응했다.

절반 정도의 참가자들이 고릴라를 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무주의 맹시'라는 현상인데, 눈이 특정 위치를 향하고 있지만 주의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눈이 향하는 위치에 예상치 못한 대상이 나타나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실험참가자들 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패스 횟수를 세는 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고릴라의 등장에는 '눈이 먼'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아주 선행하게 보고 있다고 자신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당장 관심을 쏟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상은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우리 삶 한가운데 있는 재난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들이 겪는 고통과 비탄에는 '마음이 먼'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자. 무엇보다도 그들의 입장에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공감적 이해가 필요하다.

경제수역(EEZ)에서의 불법 중국어선 단속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어업지도선이 규모가 작고 노후화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대형화, 현대화되고 있는 불법 어선들을 따라 잡는 데 한계가 있다. 해난사고 예방과 그에 따른 구조에도 애로가 크다고 한다. 특히 전남도 지도선의 경우 상당연간 운항일수가 120일로 '사흘 중 하루'는 바다에 떠 있어 사고 위험도 우려된다.

어업지도선은 이제 그 역할이 어업 관련만이 아닌 해양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급증하는 데다 해난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어업지도선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노후 지도선에 대한선 규모가 크고, 침단장비로 무장된 지도선으로 교체하는 게 급선무다.

無等鼓

봄의 끝자락이자 여름의 시작인 5월 초순, 붉은 빛깔 철쭉의 향연(饗宴)이 끝날 무렵에 교태하듯 새하얀 꽃들이 피어난다. 이팝나무이다.

나무 전체에 하얀 꽃을 피운 모습이 마치 사발에 '이밥'(쌀밥)을 가득 담은 모습을 연상시킨다 해서 이런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또는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드는 절기인 입하 즈음이 핀다 해서 붉은 '입하목'(立夏木)에서 유래했다고도 한다.

꼭 7년 전인 지난 2007년 5월,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松江) 시 이팝나무 애호회원

이팝나무

한한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어느새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27일의 시간이 흘렀다.

한 지인이 '세월호' 사고 이후 이팝나무를 새롭게 봤다고 말했다. 활짝 핀 꽃술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수백 개의 노란 추모리본을 연상시키더라는 것이다. 한 달 가깝게 애를 끓여 온 실종자 부모들이 진도 팽목항 바닷가에 하얀 쌀밥과 햅버거, 커피라면, 탄산음료 등으로 밥상을 차려 놓았다.

자식을 먼저 보내고 가슴에 묻어하는 비통한 부모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와 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 영 시 원 국 2200-515	문화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광 고 매 케 임 국 227-9600	독 자 서 비 수 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 F A X 227-9500 >	디 자 인 실 2200-536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 로젝 트 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